

■ 2023년도 창작의과정 #문학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 창작의과정 #문학
- 회의일시 : 2022년 11월 25일(금) 14:00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3층 세미나 1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고봉준, 유종인, 한영인, 홍명진, 황선미

이 사업은 국내에서 추진하는 문학 분야의 비평 활동 및 연구 조사를 지원하여 문학 현장의 발전과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심의에 참여한 다섯 명의 심의위원은 먼저 제출된 서류를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평가의견을 작성하는 것으로 1차 심의를 진행했고, 11월 25일에 진행된 대면 회의에서 1차 심의 결과를 공유하고 세부 항목들에 대한 검토 및 확인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을 통해 적절한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을 결정했으며, 심의는 이미 제시된 세 가지 기준, 즉 개인의 역량(30%), 사업계획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40%),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30%)에 맞춰 진행되었다.

공고문에 적시된 사업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기성의 '단체'가 아닌 개인 및 개인이 구성한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며,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도 그 성격상 완성된 비평문을 발표하는 학술대회, 심포지엄보다는 비평글을 쓰는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평과 다소 거리가 있는 행사, 학회 성격을 지닌 단체의 심포지엄 및 세미나 등이 사업의 주요 내용인 사례가 많았다. 심의에 참여한 다섯 명의 심의위원들은 이 사업의 취지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신청자는 선정 여부를 신중하게 재검토하였다.

이번 심의에는 총 29건이 신청되었다. 이번 심의에서 발견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젊은 비평가, 젊은 연구자가 중심이 되어 구성된 팀 단위의 신청이 두드러진다는 것이었다. 기존에는 비평은 문예지를 중심으로, 연구는 대학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것이 관례였으나, 최근에는 제도의 바깥에서 개인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비평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문예지에 발표되는 비평이나 단행본에 수록될 예정으로 작성된 글과 달리 과정으로서의 비평, 비평 '활동'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이 외에도 SF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도 특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다. 장르를 불문하고 S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최근 문학계의 흐름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많은 수의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는 없었다. 다만 심의

위원들은 지원금액을 일부 조정해서라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지원하자는 데 일치된 목소리를 내었다. 이에 따라 계획서에 금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항목을 포함한 경우 등 예산을 꼼꼼히 검토하여 감액하고, 지원 규모를 전체적으로 조금씩 삭감하는 과정을 거쳐 선정 건수를 늘렸음을 밝혀둔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사업은 사업의 성격을 오해한 개인 및 단체가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지난해의 심의위원들도 동일한 문제를 지적한 만큼 향후 사업의 취지와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는 후속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는 접수 단계에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심의위원 일동